김광현 신인왕? 관건은 규정 이닝

▲ 김광현. 사진=타운뉴스 DB

김광현(32, 세인트루이스)은 과연 메이저리그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까?

3일 '데일리안' 에 따르면 김광현은 이날 현재 올 시즌 5경기(선발 4경기)에 나와 21.2이닝을 소화했고 2승 무패 평균자책점 0.83을 기록 중이다. 신인 신분임을 감안하면 매우 만족스러운 성적표라 할 수 있다. 그러자 미국 언론들도 김광현을 주목하는 모습이다.

AP통신은 김광현의 시즌 2승째를 보도하며 "신시내티를 상대로 무실점 행진을 11이닝으로 늘렸다." 고 강조했고,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회원으로 유명한 칼럼니스트 제프 존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광현은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상을 받을 만하다." 고 칭찬했다.

성적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신인왕 레이스가 김광현이 가장 앞서간다 할 수 있다. 다만 변수는 규정 이닝 돌파 여부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를 달리고 있는 세인트루이스는 구단 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이날 현재 27경기(14승 13패)만을 치렀다. 다른 대부분의 팀들이 35경기 안팎을 소화해 이를 메우려면 빡빡한 일정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세인트루이스는 정규 시즌이 끝나는 9월말까지 7차례나 더블헤더를 치러야 하고 휴식일은 단 이틀에 불과하다. 26일간 31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강행군을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김광현이 페넌트레이스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규정 이닝을 돌파하려면 최소 58이닝은 채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김광현의 이닝 수는 21.2이닝으로 앞으로 36.1이닝이라는 숙제가 주어졌다. 아무래도 휴식일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김광현이 나설 수 있는 경기 수는 4경기에서 최대 5경기가 될 전망이다. 만약 5경기에 출전이 가능하다면 경기당 7이닝은 소화해야 규정이닝을 돌파할 수 있다.

김광현이 KBO리그에서 얻지 못했던 신인왕의 아쉬움을 빅리그에서 풀 수 있을지 향후 등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켈슨 "타이거에게" SNS 글 화제

필 미켈슨(미국)이 SNS에 올린 '타이거에게' 라고 시작하는 짧은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 미켈슨(왼쪽)과 우즈. 그래픽=타운뉴스

3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미켈슨은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20년 넘도록 타이거 우즈(미국)에게 가려져 있는 2인자 신세였다.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은 최대의 라이벌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2인자에 더 가깝다. 통산 44승을 거둔 미켈슨은 우즈라는 거대한 존재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우승을 거뒀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올해 만 50세가 된 미켈슨은 PGA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 진출이 무산돼 일찍 시즌을 접었다. 우즈 역시 3차전 진출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미켈슨은 2일 SNS에 "타이거에게. 골프라는 위대한 경기에서 자네가 해낸 모든 것에 감사하네." 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나만큼 자네 덕을 크게 본 사람은 없다." 면서 "자네와 자네의 성취에 내가 아주 감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고맙다." 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대해 치열한 라이벌 관계였던 두 위대한 골프 선수 사이 이면에 흐르는 연대감을 보여준 감동적인 글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미켈슨이 왜 갑자기 이런 글을 SNS에 올렸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시즌을 일찌감치 마친 미켈슨이 같은 처지의 우즈에게 시즌 마무리 안부 인사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연아, YOG 조직위 집행위원 선임

'피겨 여왕' 김연아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Youth Olympic Games·이하 YOG)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을 맡는다. 당초 김연아는 부위원장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 김연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3일 '아시아경제' 에 따르면 강원YOG 조직위는 이날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 등을 선임하고 정관과 사업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직위 집행위원에 '피겨 여왕' 김연아(30), 유명 피아니스트 손열음(34) 등 젊은 예술·체육인이 선임된 것이 눈길을 끈다.

조직위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조직위원장에 임명했고, 유승민 IOC 위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했다. 조직위는 "이번에 각 분야 대표 34명의 위원으로 출범했지만 향후 70명까지 위원을 확대해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YOG는 IOC가 세계 청소년의 연대와 교류 촉진을 위해 창설한 대회로 2010년 제1회 싱가포르 청소년올림픽대회를 시작으로 동·하계 대회가 4년마다 열리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월 1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35차 IOC 총회에서 제4회 YOG 개최지로 선정됐다.